

12 문화

‘밥약’ 문화, 밥 속에 담긴 인간애적 배부름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신입생 정원우(화학공학 2024) 씨는 입학 후 적극적으로 ‘밥약’을 잡고 있다. 선배와 친해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학교생활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밥약은 ‘밥 약속’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사주는 식사 약속을 일컫는다. 밥을 얻어먹은 후배는 훗날 일종의 ‘보은’ 행위로 밥을 사줬던 선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한다. 밥약 문화는 선후배

간 친밀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학기 초 어색한 선후배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의미다. 대학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대학생 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

밥약은 선후배 간의 정을 쌓는데 도움을 준 오랜 문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밥 한번 먹자”는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 한국 사회에서 ‘밥’의 의미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지속 의지와 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학생들 역시 ‘밥’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간다.

하지만 밥약 문화는 지난 몇 년 사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이 그 원인이다. 김민지(국어국문학 2019) 씨는 지난 2020년, 2학년이 되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체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김 씨는 “비대면 전환으로 밥약 등 선후배 간 교류가 줄었고, 특히 19학번과 20학번 간 교류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후 다시 ‘밥약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밥약의 위기는 최근에도 찾아볼 수 있

다. 고물가 시대로 외식이 부담되는 상황이 찾아왔다. 주로 밥을 사는 선배들은 밥약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후배 역시 고민이 많다. 김정환(화학공학 2024) 씨는 “물가가 많이 올라 밥약 메뉴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다”며 “보은도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밥약 문화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전여진(자율전공학 2019) 씨는 “선배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잡았던 밥약이 언제부터인지 그 갯수가 중요해졌다”며 “밥약

이 많으면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진 것이고, 밥약이 적으면 대인관계가 넓지 않다고 단정짓는 풍토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밥약은 기본적으로 식사와 관계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모두 충족해 여러 어려움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밥약은 ‘좋은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소기 목적을 충족시켜주고 건강한 학내 문화로의 역할을 한다. 그 끝에 밥약은 위기를 극복하고 교류와 소통의 문화로 끝까지 학생들을 맞이할 것이다.

밥약의 성지, ‘할머니보쌈’과 ‘엄마닭’에서 추억을 공유하다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새 학기, ‘밥 약속(밥약)’은 빼놓을 수 없는 대학생들의 즐거움이다. 서울 캠퍼스(서울캠)에 있는 ‘할머니보쌈’은 올해 초 의과대학 학생회 제후 업체로 선정되는 등 학생이 자주 찾는 밥약 식당임을 입증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엄마닭’을 나오는 학생에게 “엄마닭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냐”고 물었더니 “우리학교 학생 맞냐”는 핀잔과 함께 “엄마닭은 밥약의 성지”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뛰어난 가성비와 맛, 독창적인 메뉴로 오랜 세월 학생에게 인연을 만들어주는 창구를 제공한 양 캠퍼스 ‘학생 인증 밥약 성지’를 찾아가 봤다.

이유 없는 이끌림 언제 된 확인

할머니보쌈 한창훈 사장은 “경희대가 가장 좋아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다른 대학보다 경희대에 이유 모를 끌림이 있었다고 했다.

가게를 열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할 한 사장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 학생을 상대하기에 ‘가성비’를 추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메뉴 특성상 원재료 가격이 높아 남

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도 “잘 먹었다며 또 오겠다”는 말을 해주는 학생 덕분에 행복하고 즐겁다.

‘가성비’ 이외에도 독창적인 메뉴 역시 할머니보쌈의 특징이다. 특히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간장보쌈’이 대표적이다. 사장님은 가게 운영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항상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색다른 메뉴를 고민한다”고 했다. 노력의 결과인지 할머니보쌈은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찾는 대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찾아온 어려움 그렇기에 더 갖게 된 책임감

하지만 그간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다.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올해 의과대학 학생회와 제휴를 맺었지만 단체로 휴학하면서 예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고물가 역시 발목을 잡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격을 뒤늦게 올렸지만 자주 오던 학생이 “식비가 많이 나가 학식을 자주 사 먹는다”는 말을 했을 때는 걱정과 더불어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기에 식당을 찾아주는 학생들에게 “진부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전했다. “가게를 찾아주는 학생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장님은 오늘도 자주 오는 학생에게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을 얻는다.

기본 좋게 먹고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사장님의 꿈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주하지 않고 메뉴 다양화에도 힘을 예정이라고



‘더 나은 가게’를 위해 사장님은 오늘도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공예진 기자)



‘할머니보쌈’은 맛과 가성비를 모두 잡아 학생들의 인기를 얻어왔다. (사진=공예진 기자)



‘엄마닭’ 사장님에게 자식 같은 학생들은 장사를 계속하는 원동력이다. (사진=공예진 기자)



가게 내부는 학생들이 ‘엄마닭’에 표출한 애정과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공예진 기자)

말했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장님의 진중한 얼굴에서 음식과 학생들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엄마닭’, 역사의 시작

서울캠에 ‘할머니보쌈’이 있다면, 국제캠에는 우정원 오른편 경희마을에 위치한 ‘엄마닭’이 있다.

오동희 사장님이 운영하는 엄마닭과의 인연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남자 사장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뒀을 때, 직장 동료에게 경희대 앞 엄마닭을 인수할 것을 권유받으면서부터다. 처음에 사장님은 망설였다. “아무래도 장사가 힘들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한 번 해보자며 시작했던 장사가 이렇게 오래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장사를 시작하고 계속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학생들이었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키워갔다.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을 때도 학생을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속상했다. 그간 가게를 찾아왔던 학생이 많았다.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져 행복하다”는 사장님의 말에서 안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장사를 하면서 엄마닭과 학생들도 함께 커갔다. “졸업한 학생이 아이 셋을 데리고 가게에 방문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군대 가기 전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운영하고 계셔야 해요”하며 신신당

부하던 학생이 제대 후 다시 가게를 찾았을 때 역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했다.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각자 성장을 거치며 조금씩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사장님의 마음이다. 엄마닭 사장님은 ‘엄마’다. 친자 식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렇다. 생일날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집이 그리울까 싶어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다. “미역국을 받은 학생이 울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하는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또 식사 후에 학생들이 “잘 먹었다”며 인사를 건네는 것 역시 변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가게 내부에는 학생들이 남긴 추억과 마음이 글씨로 벽과 의자에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고마운 학생들 항상 마음 전하고파

오 사장님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학교 동아리를 후원해 주기도 한다. 또 가게에 동아리 홍보를 부탁하면 흔쾌히 수락해 주신다. 가게 입구부터 내부까지 여러 곳에서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올해 장사 22년 차를 맞은 사장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저 학생들과 최대한 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이 전부다. “무엇보다 식당을 찾아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사장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처럼 찾아와서 놀다 가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